

역대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를 들여다 보니...

글 | 이은정 _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ejung@kyunghyang.com

해마다 새해가 되면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한림원은 젊은 과학자상과 한국과학상(혹은 한국공학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젊고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가진 과학자들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 이 올해로 10돌을 맞았다.

젊은 과학자상은 우수한 연구 능력을 가진 과학자를 발굴, 포상하는 것으로 한국과학상(한국공학상)과 함께 한국 과학계의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7년 처음 수상자를 선정한 이래 올해까지 38명의 과학자들이 이 상을 받았다.

젊은 과학자상은 수학의 필즈메달처럼 나이제한(40세)이 있어 쉽게 받기 어렵다. 이공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포닥(박사 후연구원)을 마친 후 자리를 잡는 나이가 빠르면 30대 초반, 늦으면 30대 중반이 된다. 여기다 연구업적을 어느 정도 쌓아야 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젊은 과학자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년 정도인 셈. 신인여자배우상이나 신인가수상처럼 '과학계의 신인상' 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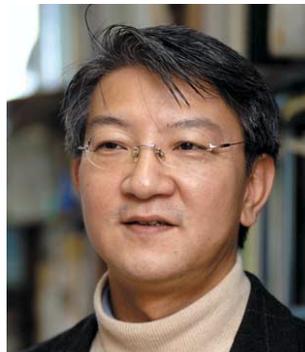
지난 10년간 총 38명 수상

지난 10년간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 명단을 살펴보니 눈에 익은 사람들이 많다. 2006년 셀에 면역시스템 관련 논문을 발표했던 안광석 박사는 6회 수상자. 셀의 특집논문으로 선정돼 2번이나 매스컴을 탔다. 또 연세대 천진우 교수는 나노입자를



김은준 교수

이용한 암진단 기법을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했고 김은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시냅스 생성연구와 관련한 논문을 냈다. 생물학자뿐 아니라 물리학자인 김대식 서울대 교수도 네이처가 새로 창간한 네이처 포토닉스에 벡터장 나노현미경 논문을 발표했다.



이상엽 교수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호기심이 생겼다.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던 과학자들이 정말로 잘 나가고 있는지... 과거로 거슬러올라가니 1회 수상자에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있다. 이 교수는 1997년 34세의 어린(?) 나이로 화학공학분야 수상

자로 선정됐다. 그는 지난해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사이언스' 잡지를 발간하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펠로우 선임됐다. 이 교수는 닭고깃고 되고싶은 과학기술인(2003년), 올해의 과학자상(2006년) 등 다양한 상을 받기도 했다.

축구공 위의 수학자로 유명한 강석진 서울대 교수도 2회 수상자이다. 강교수는 2006년 한국과학상까지 수상해 2관왕을 거



안광석 교수

머쥬기도 했다. 강 교수는 자신의 전공인 표현론 분야에서 독창적 이론인 '아핀(affine) 양자군 결정기저와 영 월(Young Wall) 조합론'을 발표해 국제 학계를 놀라게 했다.

2005년 뉴런에 생체시계 유전자 연구를 발표한 김재섭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2003년 사이언스에 산소화 효소 중간체 연구 논문을 낸 남원우 이화여대 교수는 나란히 4회 수상자다. 이제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만 제대로 챙겨도 세계의 첨단 과학 연구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수상당시 대부분 대학 교수, 최연소 34세, 출연연·여성은 1명

수상자 명단을 좀더 분석해보자. 38명의 수상자는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상 당시 대학 교수였다. 박사 학위 혹은 포닥 시절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사람들은 대학 교수를 선호하므로 당연히 대학 교수 중에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 특히 네이처, 사이언스 등 주요 과학저널에 논문을 낸 경험자들은 당연히 인지도가 높은 대학에 집중될 것이다.

수상 당시 소속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11명, 포스텍(포항공과대학)이 4명으로서 3개 대학에 우수한 인재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봐야겠다. 일명 'SKY' 리그에 속하는 고려대는 3명, 연세대는 의외로 1명이었다. 이쯤되면 연세대는 교수 임용 내용을 잘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을까.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세대에 응모하지않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그외 이화여대, 송실대,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광주과학기술원, 세종대, 서울시립대 등이 각각 1명씩 배출했다.

국기출연연구기관 소속으로 유일하게 상을 받은 조윤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2회 수상)가 특별히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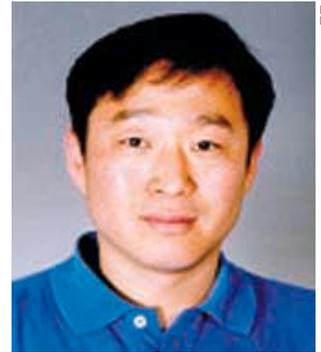


조윤제 교수

KIST에 연락해봤더니 조 박사는 2000년 포항공과대학으로 옮겼다고 한다. 또 안경원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서울대로, 김범식 교수는 포항공과대학에서 고등과학원으로, 안광석 교수는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옮겼다. 강석진 교수는 서울대에서 고등과학원으로, 다시

서울대로 옮겨왔다.

역대 수상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34세였다. 서대식(1회), 이상엽(1회), 조민행(2회), 김범식(6회), 이효철(10회) 등 5명이 34세에 상을 받았다. 여성은 올해 상을 받은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가 있다.



강석진 교수

수상의 위력과 무게는 다소 낮아져

젊은 과학자상을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영광일 것이다. 그러나 젊은 과학자상이 갖는 위력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낮아졌다. 과학기술 분야의 상들이 많이 생기면서 상의 희소성이 줄어든 것이다. 초기에는 대통령이 수상자를 청와대로 불러 시상했지만 올해는 코엑스에서 국무총리가 시상했다.

또 상금이 가지는 무게도 줄었다. 젊은 과학자상을 받으면 연구지원금으로 1억5천만 원을 받는다. 10년 전에는 1억5천만 원(연 3천만 원씩 5년 지급)이 꽤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차원의 연구비가 늘어나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지원금을 받고 3년 후에 1차 보고서를, 5년이 지나면 2차 보고서를 내야 하므로 상금이라기보다 신경써야 할 연구 프로젝트가 하나더 늘어난 셈이다.

그래서인지 수상자 중에 상금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안광석 서울대 교수는 "상금을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수상자에게 도약과제(옛 국가지정연구실)를 자동으로 주는 식으로 수상 후 받는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경향신문사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등을 거쳐 현재 과학전문기자로 활동중이며, 2006년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을 수상했다.